

2022년 12월 11일(일) 11시

# 건작연 연합예배

참여 청어람홀(새맘교회)/유튜브 " 건작연 "

장소 \_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28 낙원상가 5층  
설교 \_ 박득훈 목사



중앙한사은교회연합

# 2022년 12월 10일 주일공동예배



예배의부름

이명희 장로  
새맘

경배와찬양

박소래 청년  
김주영 권사  
새맘

공동기도

건작연을 위해 – 강영특 집사 너머서  
한국 교회를 위해 – 주혜린 청년 너머서  
한국 사회를 위해 – 김종섭 집사 예인  
지구촌(세계)을 위해 – 김보현 장로 예인

성경읽기

누가복음 2장 25-35절

김태의 권사  
예인

특송

건작연 집행위

설교

의로운 기다림

박득훈 목사  
새맘

찬양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봉헌기도

배상필 집사  
언덕

공동축도

유선영 집사  
언덕

광고

박희주 집사  
너머서



# 445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통 502)

H. J. Zelle, 1899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요일 1:7)

HEAVENLY SUNLIGHT: 10.9.10.9.REF.

보통으로

G. H. Cook, 1899

1. 태산을 넘 어 험곡에 가 도 빛가운 데 로 걸어가 면  
2. 캄캄한 밤 에 다닐지 라 도 주께서 나 의 길되시 고  
3.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반 아 찬란한 천 국 바라보 고

주께서 항 상 지키시 기 로 약속한 말 씀 변치않 네  
나에게 밝 은 빛이되 시 니 길잃어 버 릴 염려없 네  
할렐루 야 를 힘차게 불 러 날마다 빛 에 걸어가 리

후렴  
하늘의 영 광 하늘의 영 광 나의맘 속 에 차고도 넘 처

할렐루 야 를 힘차게 불 러 영원히 주 를 찬양하 리



## 감사해

Dan Burgess

3/4

A D Bm C#m

감 사 해 시 험 이 닥 처 을 때 에

5 C#m D Bm A E A

주 께 서 인 도 하 시 니 두 려 움 없 네

10 D Bm C#m

모 두 감 사 해 절 망 속 에 서 새 힘 을

15 D Bm A E A

새 로 운 용 기 주 시 니 승 리 하 리 라

20 D E Bm C# F#m

나 의 모 든 생 활 속 에 서 주 님 이 합 께 하 시 니

25 Bm E7 A E A

주 님 의 성 령 나 를 인 도 하 시 리 시 험 이

30 D E Bm C# F#m

나 를 찾 아 올 때 주 님 지 켜 주 시 리 주 님 의

34 Bm E7 A D A D.S.

성 령 나 를 인 도 하 - 시 리

38 A E A D E7 Bm C#

라 또 감 사 드 리 세 우리 주 님 의 은 혜

43 F#m Bm E7 A E A

로 받은 구 원 을 감 사 해 영 - 원 히 나 의 모 든

49 D E7 Bm C# F#m

생 활 속 에 서 주 님 이 합 께 하 시 니

53 Bm E7 A D A

감 사 드 리 세 주 님 께 영 - 원 히



#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Henry Smith

올네이션스 역

거룩하신 하나님 - 주께 감사드리세 -  
의 맘과 뜻다해 - 주를 사랑합니다 -

날 위해 - 이땅에 오신 독생자 - 예수 나

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 고

가난 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사 감사 -

Copyright (C) 1978 Integrity's Hosanna! Music. Adm. By CopyCare Korea. Used by Permission.



## 강영특 집사 (너머서교회)

보라. 형제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시 133:1). 사랑의 주님. 다사다난 했던 2022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는 오늘, 주님이 따로 구별하셔서 복 주신 이 주님의 날에, 우리 건작연 형제 교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연합 예배로 우리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존재의미를 망각하고 성장제일주의라는 세속의 가치에 매몰되어 있을 때, 건강한 작은 교회라는 복음적 가치를 위하여 소수의 교회들이지만 함께 협력하고, 격려하면서 이 자리까지 함께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작은 심히도 미약하여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이었지만, 우리의 진심 어린 작은 외침이 한국 교회의 건강성 회복의 작은 불씨가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갈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교회개혁의 소명을 따라 우리의 초심과 열정이 변치 않게 하옵시고, 주어진 소명을 완수하는 그 날까지 우리 건작연 형제 교회들이 개 교회 주의의 장벽을 넘어 끝까지 함께 연대하고 동역하게 하옵소서.



## 주혜린 청년 (너머서교회)

사랑의 주님. 벼랑 끝에 서있는 우리 한국의 교회들의 위기를 돌아 보옵소서. 개신교에 대한 신뢰 지수가 매년 하향하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치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의 길보다, 좀 더 편하고 안일한 체질로 바뀌고, 선배들이 물려준 한국 교회 특유의 신앙 열정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성도의 숫자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미래요, 희망인 청소년 세대들의 교회 이탈은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한 때 무분별한 성장 지상주의와 교회당 건축의 열풍은 잠시 멈칫 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 사유화로 비난받고 있는 교회의 세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도를 회복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는 은혜를 베푸소서.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교회의 본분을 정립하고, 교회의 존재 이유를 묻고 또 물으면서, 교회의 건강성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을 통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김종섭 집사 (예인교회)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총체적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경제문제, 가계부채, 남북문제, 이념문제, 정치문제, 저출산 문제, 지도자 문제 등 갖가지 난제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념과 세대와 계층과 지역을 따라 온나라가 분열되어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대의와 원칙이 무너지고 당리당락과 자기이익에 충실한 소인배들의 책략만이 난무하는 약육강식의 정글판이 되어버린 이 나라의 정치가 대오 각성하여 우리 민초들의 삶을 돌아보고, 사회적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파고는 언제나 불공평하여서 경제적 약자의 삶을 바닥부터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다음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고 있는 기성 세대들이 미래 세대들의 몫을 미리 당겨 사용하거나,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미래 세대로 이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후대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미덕 위에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김보현 장로 (예인교회)

사랑의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하고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포이에마, 이 지구촌을 돌아 보옵소서. 경제위기, 기후 위기, 국가부도, 신 냉전 체제, 침략 전쟁, 핵무기와 같은 공포스러운 단어들이 오늘의 이 지구촌 상황의 엄중함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 전쟁의 위협과 공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세우는 명분과 목적이 무엇이든, 그 깊은 내면에는 인간의 죄성과 탐욕이 또아리를 틀고 있을 뿐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지구촌 곳곳에서 지진과 극심한 가뭄과, 엄청난 홍수에 대한 소식을 빈번하게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구의 몸부림 인줄 믿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거대한 산불이 지구의 탄식인 양 지구촌 곳곳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극지의 얼음이 녹아 내리고, 만년설이 급속히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인간들의 무분별한 탐욕의 대가인줄 믿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이 자연의 탄식과 눈물과 몸부림을 보고, 피조물의 탄식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이 지구촌이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하여 우리만 피해 가면 된다는 폭탄 돌리거나, 공동의 책임이라는 방패 뒤에 숨지 아니하고 이 문제와 정직하게 직면함으로써 이 지구를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십 년 남짓 남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득훈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준비된 마음 위에 깨달음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25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 26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 27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 28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 29 "주님, 이제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 30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 31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 32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 33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 34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 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 35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 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통일 104)

# 곧 오소서 임마누엘

104

구주 강림

Latin Hymn, 12th Century

보통으로

O come, O come, Emmanuel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 1:23)

VENI EMMANUEL: 8.8.8.8. REF.

Adapt. from Plain Song

Arr. by T. Helmore, 1854

1.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2. 곧 오소서 지혜주의 온만물질서  
3. 곧 오소서 소망의 주만 백성한 맘

이 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 달 파  
주 시고 참 진리의 길 보 이 사  
이 루어 시기와 분쟁 없 애 고

메 시야 기 다 립 니 다  
갈 길을 인도 하 소 서 기 때 하 라 이  
참 평화 채워 주 소 서

스 라 엘 곧 오시리오 임 마누 엘 아 멘



유선영 집사 (언덕교회)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다리는 의인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의로운 기다림으로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는 모든  
이들 위에 함께 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1. 건작연 연합 예배에 장소를 제공해주신 새맘교회와 참여해주신 회원 교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회원 교회가 건강한 작은 교회 운동의 가치를 공고히 하고, 이 정신을 한국 한국 교회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건강한 작은 교회 아카데미를 2023년에 시작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뒷장 참조)
3. 오늘 건작연 연합예배 헌금은 소속 교회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시: 2월 2일~ 2월 23일(매주 목) 오후 8시

방식: 줌(ZOOM)

신청:



# 건강한 작은교회 아카데미

## 1. 왜 건강한 작은교회인가?

이우돈 장로  
(너머서교회 전임 운영위원장)

## 2. 평신도신학

주영관 목사  
(너머서교회)

## 3. 민주적인 교회 운영, 어떻게 가능한가?

이태웅 장로  
(새맘교회 전임 운영위원장)

## 4. 건강한 교회의 정관

정재준 권사  
(예인교회 전임 운영위원장)

## 5. 직분제의 문제점과 대안들

김태완 목사  
(언덕교회)

## 6. 평신도 설교

이수연 목사  
(새맘교회)

## 7. 건강한 교회 재정

김형중 집사  
(새숨교회 운영위원장)

## 8. 세상을 섬기는 교회

정성규 목사  
(예인교회)

# 건강한 작은 교회 아카데미 2023



일시: 2월 2일~ 2월 23일(매주 목) 오후 8시

방식: 줌(ZOOM)

신청:



일시 2월 2일~2월 23일(매주 목) 오후 8시 ~ 10시

방식 줌(ZOOM)

대상 회원 교회의 신임 운영위원, 새가족, 기타 교육을 원하는 분들

신청 <https://forms.gle/vDJ6VPVPXKW6eKZN7>

## 프로그램

2월 2일(목) 왜 건강한 작은 교회인가?  
최우돈 장로 (너머서교회)  
평신도 신학  
주영관 목사 (너머서교회)

2월 9일(목) 민주적인 교회 운영, 어떻게 가능한가?  
이태웅 장로(새맘교회)  
건강한 교회의 정관  
정재준 권사 (예인교회)

2월 16일(목) 직분제의 문제점과 대안들  
김태완 목사(언덕교회)  
평신도 설교  
이수연 목사(새맘교회)

2월 23일(목) 건강한 교회 재정  
김형중 집사 (새숨교회)  
세상을 섬기는 교회  
정성규 목사 (예인교회)





‘건강한 작은 교회 연합(건작연)’은 건강한교회를 추구하는 교회 간 연합기구로서 회원교회간 유대강화 및 협력사역을 전개하며, 교회개혁 시민단체를 지원 협력하고, 건강한교회의 태동과 확산을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합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 연합’이 지향하는 목표는 ‘건강하고 작은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건작연은 크게 **세 가지 교회 운영 방향**을 정했습니다.

- 1.민주적 교회 운영
- 2.투명한 재정 운영
- 3.평신도 중심 운영

이는 목회자 한 사람이나 교회 소수 리더들이 교회를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닌 교인 전체의 의사를 교회 운영에 반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고민으로 만들어 낸 제도가 **민주적 정관(규약), 직분의 재신임제, 투명한 재정 공개, 예배만을 위한 공간 갖지 않기** 등이었습니다.

아울러 건작연은 개교회중심, 패거리 문화로 점철된 한국교회 현실에서 가치 중심으로 느슨하지만 끈끈한 연대를 지향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심포지움, 체육대회, 수련회, 강단교류, 찬양제 등이 이런 가치를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한국교회 현실에 대해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런 교회 다니고싶다(이교다) 세미나’가 대표적입니다.



건작연에는 여섯 가지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1. 작음, 나눔, 비움의 성경적 가치
2. 신앙과 삶의 진실한 공동체
3. 가치 중심의 연합
4. 신자와 교회의 사회적 책임
5. 민주적 운영과 재정 투명성
6. 목회자와 일반성도의 동역

건작연은 교회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과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통해 한국교회 건강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활동합니다.

2022년 1월 현재 회원교회

너머서교회, 더작은교회, 새맘교회, 새숨교회, 언덕교회, 예인교회, 징검다리교회 (총 7개)